전남도, 우주발사 인프라 집중 구축해 '글로벌 우주항' 도약

발사체 특구 민간발사장·국가산단 등 핵심인프라 조성

우주기업·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육성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미래조감도

전라남도가 2009년 국내 유일의 발사장을 갖춘 고흥 나로우주센터 준공 이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선 가운데 뉴스페이스시대 '글로벌우주항' 도약을 위해 국가산단 등 핵심인프라 조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발사체 특구로서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올해 11월에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도의 누리호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12월 정부로부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돼 경남·대전과 우주산업 삼각축 체제를 형성, 2031년까지 총 1조 6천84억 원을 투입해 민간발사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술사업화센터 등 24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대 1천753만㎡ 규모로 3천8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38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2030년까지 1천480억이 투입돼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 개척에 기여할 예정이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는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의 다양한 발사체 엔진 개발 지원을 위한 엔진연소시험시설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양성과 우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조성한다. 대한민국 우주 역사를 전시하고 우주과학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우주관광 산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2우주센터 건립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전남 우주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재사용 발사장을 포함한 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우주센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 조립, 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혁신기업·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기업 지원, 기술 실증 및 인증을 담당하는 우주청 산하기관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제2우주센터 건립과 교육, 체험시설 구축·운영(사이언스 콤플렉스)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산업 기반이 되는 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온힘을 쏟고 있다.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는 올 하반기 수립되는 정부의 제3차 국가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 중이며, 경전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하는 우주선 철도, 고속철도사업은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다. 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올해 8월 예타를 최종적으로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앞으로 고흥은 도로와 철도 등 3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펼쳐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우주강국 실현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앞으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과 우주항공 기업 지원 등을 통해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북구, 연기됐던 'KBS 전국노래자랑' 다시 열린다!

대형 산불로 인해 잠정 연기 이후 재유치 노력 결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 3월 전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KBS 전국노래자랑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본선 녹화가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북구의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려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지난 3월 말 개최하기로 했었던 노래자랑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잠정 연기됐고 이후 7개월여 만에 다시 북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노래자랑 예심은 이번 달 31일 오후 1시부터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 하정웅아트홀에서 진행되며 1차(무반주)와 2차(노래방 반주) 심사를 거쳐 총 15팀 내외의 본선 참가팀을 선발한다.

지난 3월 예심 참가 신청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므로 별도의 참가자 모집 기간을 두지 않고 예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8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본선 녹화는 다음 달 6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시에는 동강대학교 종합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긴다.

본선 녹화 당일에는 MC 남희석의 재치 있는 진행과 더불어 박상철·강문경·유지나·이정옥·이미리 등 다양한 초대 가수가 출연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본방송은 내년 2월 중 KBS 1TV에서 방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예술과(☎062-410-8369)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 상황으로 잠정 연기됐던 KBS 전국노래자랑을 10월의 마지막 날 예심을 시작으로 주민들께 다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주민들의 일상에 웃음과 활력을 더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생' 모집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도시재생대학 운영

광주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시재생대학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광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이론 교육 40시간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실습 교육 40시간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가 교육생은 이 기간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관련 법규, 농업 관리기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홈 가드닝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도시재생대학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40명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070-4472-3565)로 전화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인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환경 보호 실현을 위해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서구아너스, 청소년과 떠나는 '교과서 밖 독도 역사여행'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착한 동행"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액 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가 청소년들과 함께 독도로 '교과서 밖 역사여행'을 떠난다. 서구는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구아너스와 초·중·고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독도원정대가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구아너스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 복지를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3300만원 규모의 경비 전액을 지원했다.

서구아너스는 독도 방문을 계기로 미래 세대에게 '역사 바로 알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예정이다. 회원들은 "'독도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희생과 우리 국민들의 치열한 몸부림을 기억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켜야 함을 몸소 깨닫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독도지킴이로 유명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큰 배움의 기회"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영상 메시지로 응원했다.

독도원정대는 21일 울릉도로 출발해 23일 독도에 입도할 예정이며 독도영상 촬영, 독도 골든벨, 태극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길 계획이다. 출발에 앞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원정대는 사전 교육 시간을 갖고 독도의 역사를 함께 배우며 각오를 다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아너스의 착한 동행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선물했다"며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계승·발전시키는 착한 서구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동구,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설명회

이달 27~31일 지산2·3재조사지구 측량 결과 공유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산2·3재조사지구에 대한 측량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부터 31일(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27~28일에는 지산2재조사지구(지산동 160-1번지 일원), 30~31일에는 지산3재조사지구(지산동 18번지 일원)에 대하여 설명한다. 설명회 장소는 지산2동 마을사랑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동구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확히 조사·측량하고,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들이 토지소유자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설정과 면적 증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소유자별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주민들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돕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산2·3재조사지구는 과거부터 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웃간 분쟁이 잦았던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토지 소유권에 관계된 사항이니 많은 토지소유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측량 결과 설명회에 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측량 결과 설명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11월에 측량 결과 설명을 재공지,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에는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오철수 기자

☎062-525-9775